

8살 '리틀 싸이' 울린 악플...황민우 소속사 "나쁜 네티즌 더는 못 참아"



인종차별 댓글 못 견뎌 경찰 수사 의뢰

"8살 아이에게 집단 린치성 댓글을 수백 건이나 올린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리틀 싸이'로 불리는 광주 출신 황민우(8) 군의 소속사가 악성댓글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강남경찰청은 2일 황군의 소속사인 스타존엔터테인먼트가 악성댓글을

달고 소속사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네티즌에 대해 수사에 달라는 전자민원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달 사이버경찰청에 제출한 전자민원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지속적인 혐오 댓글을 달아 황군이 피해를 보고 있고, 회사 서버를 해킹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

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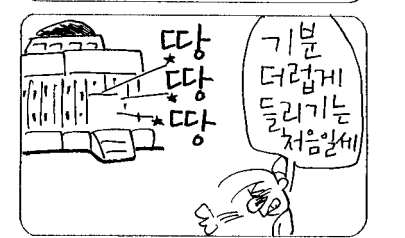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소속사 측이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하는 등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해당 네티즌들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리틀 싸이'로 깜짝 스타가 된 황군은 어머니가 베트남 여성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황군의 아버지는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3월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민우가 댓글을 읽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고 아빠로서 정말 속상했다"며 "민우가 '엄마는 한국 국적도 따고 한국인인데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나'라기에 '댓글은 보지 말고 그냥 네 길을 가라'고 얘기해 줬다"고 안타까워했다.

황군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국제결혼을 했다고 8살 아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인간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황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포돌이 2.0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포돌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명절 떡값받은 교장 해임

설 명절 때 교직원들로부터 '떡값'을 받은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과 함께 받은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물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교사 15명과 비정규직 2명 등 17명으로부터 현금과 과일 등을 받은 광주모초등학교 A교장을 해임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받은 금액 160만원의 4배인 640만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금고털이 2인조 징역 7년·4년

광주지법 선고

경찰관이 포함된 여수유체국 2인조 금고털이범에게 징역 7년과 4년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강화석 부장판사)는 2일 유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관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특히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먼저 저지르고 공범 박씨가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독려한 점, 이 밖에

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박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유체국 금고에서 현금 5000만원을 털 현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시내 모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김씨는 경찰 재직 시 단속정보 제공을 미끼로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예방접종 받고 건강하세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을 찾아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뇌물받고 양식업 허가·법원 공탁금 횡령

광주·전남 공무원 비리 잇단 적발

뇌물을 받고 양식업을 허가해 주고, 법원 공탁금을 횡령하는 등 광주·전남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해남군 수산과 직원 A씨와 영광군청 재무과 직원 B씨 등 2명을 파면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지난 2009년 4월~2011년 8월 양식업 허가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 10월 관내 전복양식업자에게 금품을 요구, 5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09년 6월 남인이 편백지출금 전표를 이용, 법원 공탁금 관리계좌에서 952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수시 공무원 C, D, E씨는

2010년 5월에 거문도지구 해양관광타운 도로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사계약이행 보증금 채권확보 업무를 부당처리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 남구 F과장 등 공무원 3명도 2011년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확인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토착비리를 집중 점검한 결과, 33개 기관에서 70건의 고질적 공직비리를 적발해 6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하철 승객 응급 대책 시급하다

'노인사망 사건' 기관사 해명 반복 중용 논란

입원중인 아내를 밤새워 간호한 70대 노인이 피로를 이기지 못해 지하철에서 숨진 사건(광주일보 5월1일자 6면)과 관련, 지하철 내 응급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의식을 잃은 노인에 대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관사에게 "당시 노인이 살아있었다고 말하라"고 중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72)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 지하철 차량 내 객실 지지봉에 머리를 기댄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승객이 발견, 기관실 관제 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한 승객

은 "반대편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혈색도 노랗고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관제센터에 연락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남대병원에서 부인(65)의 간호를 마치고 남광주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도산역까지 간 뒤, 여객에서 나주로 가는 버스를 타 귀가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가 귀가하다 의식을 잃으면서 내릴 역을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남광주역에서 탑승한 뒤 아버지는 50분이 지나서야 119의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매일 내리던 역을 지나쳤다면 이미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 회차자인 종착역을

돌아 다시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씨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 측은 회차지를 돌아 나오면서 어떠한 이상 상황도 점검하지 않았고, 해당 기관사도 다시 운전석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씨를 그냥 지나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열차를 운행했던 기관사는 "회차지에서 반대편 기관실로 이동 중에 앉아 있던 이씨를 발견했지만, 쓰러진 상태가 아니라 위급 환자인 줄 몰랐다"면서 "배차 계획에 의해 8분안에 운행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손님, 손님'이라고 부르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사는 애초 "안내리시느냐, 어디서 내리시느냐고 묻자, 고개를 숙인 채 가라는 듯 손짓을 했다"고 허위로 말했다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지만 상부에서 시켜서 '살아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차량 내에는 CCTV가 없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승객이 9시10분 마복역을 지난 쯤 관제실로 연락을 해 다음일 상무으로 직원과 구급대를 대기시키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동반자 미스맛에 부상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던 40대 남성이 동반자가 날린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행. ○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9일 오후 4시10분께 장흥군 장평면 한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하던 동반 골퍼가 친 골프공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 ○골프장측은 "동반자가 친 골프공이 5m 앞에 서있던 K씨에게 튀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패유를 기인. /정흥=김용기기자 kykim@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날 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핀 X

M.H.타사 신제품 기적궁인가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산프리모날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범쳐 눈이 침침하고 어둡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라고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www.indara.co.kr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106-통-9819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현대인 누구나 겪고있는 스트레스성 질환의 해결법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이것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쫄쫄하고 눈앞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얼얼거리거나 갈라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